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2. 성시화! 그 도전과 도약의 10년사

5. 새시대 새로운 도약 (연합회, 성시본부 이전)

6.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있는 주찬양교회

8. 기업선교를 꿈꾸며(박의범원장)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9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94호

새롭게 도약하라

춘천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출범한 성시화운동본부가 사무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물론 1972년 성시화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그동안은 행사위주로 움직이던 운동체가 원드비전에 보금자리를 틀고 춘천을 품으며 구체적인 전략을 갖추어 힘차게 시작한 것이 10년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사건들을 겪으며 성장해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변화무쌍한 초고속의 시대 앞에 이제 성시화는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과 세계로 뻗어가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이 일에 어느덧 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시대적 부름 앞에 서 있다. 이 막중한 책임을 다 감당하려면 진정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와 같이 또 다시 새롭게 변화하며 도약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약 30개 도시 10여개 나라로의 양적 발전들이 있었지만 막상 성시화의 본고장인 춘천에서의 양적 변화는 너무도 아쉬운 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를 처음사랑을 회복할 때가 왔다. 이에 몇 가지를 제안하며 10주년이 지나면서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조여매고 싶다.

1. 도시 복음화를 효과적 전략을 재수정해야 한다.

한국의 성시화 운동과 비슷한 운동이 남미에서 일어나 놀랍고도 폭발적인 도시 복음화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기도 전도 운동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지역의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며 깨뜨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여리고 성을 돌 듯 지역민을 믿음으로 돌아보고 사랑의 심김을 하는 운동인데, 아주 매력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재 디자인하고 기도운동을 통한 전략적 복음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춘천의 복음화운동을 새로 일으켜 모든 교회가 부흥되도록 도와야 한다.

2. 이를 위한 '한 교회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젠 통합적 영성의 시대이다. 일반시민들조차 연합하지 못하는 기독교에 실망감을 나타낸다. 사역에 대한 아쉬움도 너무 많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본다. 함께 하면 기독교는 다시 리더십을 찾게 되고 지역 복음화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특히 도시안의 경제 정치적 현안들을 보면 아쉬움은 너무도 크다. 하나 되어야 한다. 말뿐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회복을 통한 하나됨이 일어나야 한다. 이에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3. 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에 대한 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

이 낙후되고 소외당하는 강원도와 춘천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본다.

경제의 대안과 함께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며 향락 퇴폐문화가 아닌 지역을 살릴 진정한 대안에 대한 연구와 추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성시화의 역량을 모으고 하나 되어 구체적 전략만 갖춘다면 힘든 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제 새롭게 춘천을 품고 도약할 때이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이달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7 ~38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송국재단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이 은혜 속에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교육의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외국어 마을과 초중고대가 연합할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특수 학교가 세워지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 잃어버린 태권도 동산의 꿈

춘천은 태백의 정기를 받고 맥국을 통한 한국의 정신인 선비정신이 잉어났던 도시이다. 태권도 동산이 재설립되면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고 세계인들이 함께 하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도록.

· 강원기독경영인아카데미의 활성화

지역을 변화시킬 믿음의 기업들이 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기업관을 가진 경제 제사장이 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꿈과 비전을 품기 위한 제2기 경영인아카데미가 은혜 속에 진행되며, 크리스천 최고 경영자 코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위해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워지고, 또한 이 훈련이 불신자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 일본선교와 인도국제대회

10월 13일 메시아합창대회에 참여하는 일본팀들의 구원과 춘천 교회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 위해. 10월 24일 인도국제대회에 참석하는 성시화국제대회 준비위원들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성시화! 그 도전과 도약의 10년사











춘천성시화운동이 본부의 창립계기로 창립된 지 10년이 흘렀다. 성시화의 그 도전과 도약의 10년 역사를 되돌아 보고자 한다. 성시화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이 또한 참으로 정직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1. 1996년(춘천성시화운동본부창립)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지 24년 만에 성시화를 위한 상설기관인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하, 성시본부)가 창립되었다. 성시본부 창립은 성시화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깨달은 일단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춘천성시화 추진을 위한 목회자 간담회"(96.8.30. 장소:세종호텔)와 교역자연합회 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성시본부를 창립 후(창립예배:96.9.19. 장소:소양성결교회, 강사:김선도목사, 초대본부장:조남진장로), 10월 첫째주 한 주간을 성시주간으로 선포하고 성시화를 위한 저녁말씀집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실시하였다.

2. 1997년(은사별 영역그룹의 활성화)

춘천성시화를 위한 은사별 영역그룹이 성시본부 창립 이후 활성화되었다. (사단법인)기독교 세진회 춘천지회(기독교적으로 재소자 및 출소자, 소년원생,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 및 교화사업을 목적(창립:96.5.28. 회장:윤철중목사), 춘천애중회(기독법조인회):기독법조인 간의 상호친목과 신앙향상을 도모해 사회 정의를 정립하고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창립:96.5.6. 회장:이대수판사), 춘천홀리클럽:춘천성시화와 춘천을 기록한 도시, 범죄 없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성경연구과 기도모임(창립:96.6.8. 회장:조남진장로), 기독미술인회:춘천의 기독문화의 정착, 회원상호간의 친목, 기독미술향상 발전을 도모(창립:97.4.1. 회장:김정희교수), 기독의료인회:약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모든 기독의료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를 목적(창립:97.8.25. 회장:유영호원장), 강원청소년 선교회:청소년의 전도와 양육을 목적(창립:97.9.4 회장:최상필 강원도의회의장), 춘천만나선교회:음식점을 경영하는 기독인으로 친목과 복음전도를 목적(창립:97.10.10 회장:홍승찬장로), 예수사랑운동(96.2.26.현,예스컴):춘천지역의 청소년 복음화를 목적으로 창립.

3. 1998년(성시신문창간)

성시본부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성시신문이 창간되었다(창간호:98.9.15. 사무국장:조종환목사). 1972년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성시화운동의 역사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분들에 의해 기록되어왔다(문선재목사, 조종환목사, 김영명장로 등). 기록은 역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시신문의 창간으로 성시화운동은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4. 1999년(성시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된 이래 청주, 대전, 인천 등지에서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되어 성시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성시화운동을 추구하는 전국홀리클럽연합회 결성대회(일시:1999.9.10. 오후2:00 장소:대전광역시 구청대회의실 대표회장:신윤표장로)가 대전홀리클럽 1주년 기념회를 겸해 전국에서 성시화운동관계자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5. 2000년(성시운동의 해외확산-인도 비하르주와 자매결연)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인도 비하르주의 파트나시(인도에수가족 이영길 선교사)를 영적 자매결연도시로 맺고 비하르주의 대표적인 10개 관문도시의 복음화를 위해 증보기도사역과 세미나, 전도집회를 개최하였다(2000.9.9-16). 성시화운동의 해외확산은 성시기도운동과 해외선교를 추진해 온 조은제 목사, 기정희 권사 등을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파트나 시민 전도대성회는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기도세미나는 김성수 목사(현, 아름다운교회)가 말씀사역을 인도했다.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시의 성시화 열기가 성시화운동의 해외확산에 문을 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6. 2001년(기독교문화운동전개-홈페이지와 십자가 행진)

성시화운동은 삶의 양식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그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임택창목사)에서는 부활절 새벽촛불예배와 더불어 기독교문

3면에 계속

해비타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강원도 수해지역에 사랑의집을 배달합니다

2006 수해지역에 임시주택을 제작해 전달하는 '사랑의집을 배달합니다' 행사가 순탄하게 진행돼 8월 21일 1차 인도분 10채를 강원도 인제군에 전달했다.

한국해비타트는 수해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50채의 목조주택 제작이 거의 완료되어가는 가운데 2차 인도분 10채의 임시주택을 23일 밤 6시부터 건축현장인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에서 대형트럭에 실은 뒤, 밤 10시에 현장을 출발, 다음날 새벽 6시 강원도 인제에 도착해 인도하였다. 그리고 29일 3채가 천안/이산지회에서 제작돼 인도되어, 이로써 인제군에 23채가 전달되었다.

강원도 평창군에는 27채의 집 가운데 1차 인도분 10채를 8월 26일 밤에 전달했고, 나머지 17채는 29일 천안/이산지회에서 제작한 7채와 용인 명지대 자연캠퍼스에서 제작된 10채가 함께 전달되었다.

한편 매일 명지대 용인캠퍼스와 천안/이산지회 목천현장에는 3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님은 주택을 완성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가운데 8월 23일 오후 1시 탤런트 지태현 씨가, 25일 한국해비타트 홍보대사인 탤런트 이재룡 씨가 이침부터 하루종일 자원봉사에 참여해 수고하였다. 이밖에 경희대 자원봉사단, 금호건설, 모새골교회, 삼성전자, 성민교회, 정신여고, 진아건축, 하나은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촌공사, 한국암웨이, 여의도순복음교회, 한국로타리클럽, 서울대생명과학부 H.A.T, 사랑의교회, 경성교회, 의왕시자원봉사단, 정림건축, 전남 광양 대광교회, 하나로텔레콤, 청우봉사회, (주)스토리지벨리, 한신대 신학과, KOPEC, (주)프라임링크, 육군 제55사단 장병, 주한캐나다인 아이스하키 동호인클럽 GECKOS 등이 단체로 참가하였다.

한국해비타트는 홈페이지와(www.habitat.or.kr) 전화 02-2267-3702를 통해 계속 자원봉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하루 단위로 참가신청 가능하며, 고등학생 이상 참가 가능하다. 기업이나 교회의 단체참가도 가능하다.(참가비 1인 1일 1만원)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 203 - 01 - 532101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 3천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에서 21세기 세계기독교 선교운동으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이후]

2면에 이어

화 정착을 위한 십자가 고난행진(4.15. 오후2:00)을 계획 실행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백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흰 가운에 붉은 색 천을 두른 목사, 장로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공지천 야외음악당을 출발해 삼천리 동산까지 1.2km를 짊어지고 걸어가며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연합회와 성시운동본부는 춘천을 기독교문화도시로 만들어가기로 하고, 십자가 행진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연극,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문화행사를 계획, 실행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또한 미디어 인터넷 시대를 맞이 성시본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홈페이지를 개설(담당:유근창장로)해 통신을 통한 성시운동의 확산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7. 2002년(전도와 선교운동의 활성화-총력전도, 해외선교를 위한 퍼스펙티브스)

성시화운동은 영혼구원을 근간으로 하는 총체적 선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시화운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성시본부(본부장:윤철중 목사)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총력전도운동을 실행(7.5-7.8)했다. 38개 교회와 훈련받은 대학생 선교단체 전도요원 417명은 기독교연합회(회장:김창수 목사)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전시민 5천명 전도를 목표로 하여 집중적인 전도사역을 펼쳤다(총 전도대상:3,249명 영접자:1,180명). 또한 청소년 선교단체인 예수사랑운동(대표:박상철목사)은 9월 둘째주를 청소년 복음화 주간으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전도행사를 펼쳤다. 해외선교활성화와 선교사 등원을 위한 춘천 1기 목회자, 선교단체 지도자 퍼스펙티스브스(4.29-7.2. 장소:중앙감리교회, 주최:선교한국,CCF)가 개설되어 많은 지도자들이 등참하였다.

8. 2003년(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 춘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 사명과 더불어 시대마다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과거에 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선교와 성시화를 등식에 추구하는 '제1회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11.2-11.5 강사:이등휘목사외 장소:등부장로교회)'가 시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등참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일교회 지도자 교류 친선대회(9.24. 오후2:00 장소:우두교회 선교사:조영상)를 주선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본을 가슴에 품고 성시화운동을 확신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교회 지도자들은 춘천의 성시화운동을 배우기 위해 목사 및 신도대표 22명이 방문했다. 춘천성시본부는 오직 기도만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10.6. 오후5:00 장소:춘천베어스타운관광호텔).

9. 2004년(새로운 도약을 향하여-성시본부의 개편과 성시신문의 재창간)

성시화운동본부와 성시신문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임원진으로 개편되었다. 그동안 춘천성시화를 위해 성심껏 섬겨 오신 조충환 목사(전 직장선교연합회장, 성시본부 사무총장)가 사임하고, 후임으로 조영춘 목사가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였고, 성시신문 편집위원(편집인:박상호목사)이 새롭게 구성되어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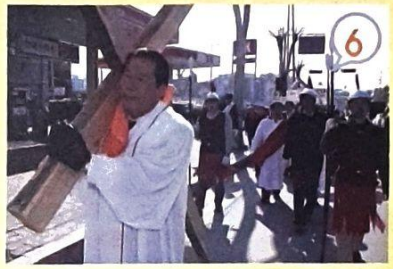
10. 2005년(지역복음화를 향한 도전과 과제)

강원도 총 기독교연합회에서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민사랑 결의대회(햇빛기도회)'를 개최하였다(8.28. 오후1:30 장소:춘천호반체육관). 한편 강원도내의 혁신도시를 통한 행정도시 유치문제로 춘천범종교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유진형목사)를 결성하여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성시화운동본부는 지역사회 성시화를 위해 새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11. 2006년(지속가능한 21세기 세계 기독교 선교운동을 향하여)

세계선교의 영적 지도자 '루이스 부쉬' 목사가 춘천성시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의논하기 위해서 춘천을 방문했다(5.26-5.31). 총체적 지역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성시화의 고장으로서 춘천은 지속가능한 21세기 세계 기독교 선교운동을 위해 영역선교회와 국제네트워크의 산실로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춘천-뉴욕 성시포럼개최(2001. 4.9. 오전10:00 장소:등부장로교회 주강사, 탐빅터목사(미국기독교텔레비전부총재, 해외선교연합대표).

[글 성시본부 사무차장 정제호 목사]













전자동 음식물 처리기
에버타인
만지기 싫은 음식물쓰레기!
이제 싱크대 배수구로 버리기만 하세요!

국물째 버려도 되므로 사용이 간편합니다.
세등소음이 없고 냄새가 사라집니다.
월 전기요금 1천원대로 저렴합니다.
최첨단 기술로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부업자 · 주부사원 모집
DOMINION (주)도미니온 대표 원 호 경 집사(소양성결 교회)
춘천시 근화동 538-1 ☎050-2336-2337 H.P:010-5503-0648

파워풀 찬양 영적파워 부흥성회
찬양과 기도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당신은 이 초청을 듣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료를 마시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자!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평생영성센터 오픈 특별집회
강사 : 최 바 울 목사
일시 : 2006년 9월 11일 저녁 ~ 14일 저녁 까지
새벽5시, 낮10시30분, 저녁7시30분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59-4 퇴계주공1차 101동 정문앞
춘천평화교회영성센터 원장 : 정 은 혜 전도사
■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문의 : 1577-1225, (033)261/263-8745, 016-9294-8743

특집좌담 : 강원도여, 빛을 발하라!

강원총기독교연합회 김용상(회장, 원주제일교회)목사와 한영용 목사(상임총무)와의 인터뷰



장: 목사님, 반갑습니다. 귀한 시기에 강원총기독교연합회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됨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은 평소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김: 제가 늘 후배 목회자에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 화평하고 후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이루는 것 보다 먼저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평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서민목회자상을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화려하고 좋은 집, 크고 비싼 차만 타려 하지 말고 희생의 본을 보여 영적 감화를 주어야 해요. 현대 교회의 평신도 수준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비결은 성숙한 영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 새벽기도시간에 전체교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일이 없는데요. 교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로 끝까지 남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연합회가 함께 하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9월 3일 오후 3시에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횃불기도회를 통한 강원도지역의 영적분위기 쇄신, 지역 간의 현안문제들의 예방과 원활한 해결 및 화해와 협력을 조성하고자"

정: 최근 들어 강원총기독교연합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점사업으로 구상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김: 강원도는 지역이 넓어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장점이 더 많아요. 먼저, 강원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영적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이 먼저 친밀한 교류를 통해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평신도들도 다양한 영역에서 화합을 위한 교류가 활발해 질 것입니다. 당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프르그램을 예를 들면, 친선체육대회나 교회성장을 위한 순회세미나 같은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하는 지역현안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면이 있어요. 강원총기독교연합회는 특히 춘천, 원주, 강릉권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3대 권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안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더불어 모든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 교회연합은 교회의 본질적 속성임에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연합을 이루기 위한 선결과제가 있다면?

한: 부활절준비위원회를 7년 동안 섬기면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개신교의 심각한 성장 저하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개교회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연합하지 않고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사회가 교회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주지역은 타 지역보다 연합이 잘되는 편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을 위한 최선의 비결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영적원리를 실천하면 됩니다. 나를 내세우면 연합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이 있으면 연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김: 금번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9월 3일 오후 3시에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관, 민, 교회가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염초는 피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험을 감수하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횃불기도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영적효과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강원도지역의 영적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성장이 정체되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합심해 기도하여 전화위복으로 바꿔야 해요. 또 한 가지는 지역 간의 현안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쉽지 않지만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연합회가 이번 횃불기도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장: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사명을 말씀해주세요.

김: 세 가지 중점사역을 해야 합니다. 첫째, 교회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교회학교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현재 교회학교는 저출산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감소, 쇠퇴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불과 20년 후면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처럼 예배당이 텅 비고 말 것입니다. 둘째, 지금은 선교의 시대입니다. 현재 세계 선교의 바톤이 한국교회에 주어졌어요.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선교의 선두주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통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통일이 언제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이고요. 교회는 통일을 바라보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일시 : 2006년 8월 18일 | 장소 : 원주제일장로교회
진행 및 글정리 : 정재호 /사진 김미경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일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일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 (춘천등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새 시대 새 로운 도약

할렐루야! 새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6년 창설된 이후 춘천의 모든 교회 및 기독교운동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온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가 10년 만에 YMCA신협의 도움을 입어 넉넉한 공간에서 명실상부한 기독교연합회로서 출범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월드비전의 사무실을 비롯한 여러 기지로 애정 어린 협력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춘천기독교연합회의 사무실 확보는 단지 사무실을 얻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춘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점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더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기독교연합회는 사무실이라는 가시적인 구심점을 얻었는데, 이는 이로부터 영적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춘천의 교회들과 기독교단체들이 연합하여 건물을 세우며 그 건물에 체플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춘천의 모든 선교단체와 기관들이 입주하여 영적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기를 꿈꾸어 봅니다.

이제 기독교연합회 사무실은 교제와 친교의 장, 춘천의 모든 기독교운동의 통로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들러주십시오. 충고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며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춘천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모든 기독단체가 마음을 열고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후년이면 춘천에 세계의 거장들과 전국의 영적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대회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춘천이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모입시다, 사무실로! 또 기도해주십시오. 영적센터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사무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Y신협과 월드비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역대 기독교연합회장 이하 임원들과 회원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박인관 목사]

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 이전

축하합니다

연 합회를 통하여 성시화운동본부의 넉넉한 인심으로 부흥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장교회 한주석 장로

새 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성시회의 역사를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갈릴리교회 최영조 목사

축 하합니다!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일들 속에 사람도 사무실도 귀하고 복된 도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촌교회 김성호 목사

기 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가 창설된 지 10년 만에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 이전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봉사의 씨앗을 심어오신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하드립니다. 21세기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춘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늘사랑교회 정재호 목사

넓 고 쾌적한 사무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는 춘천복음화와 성시화를 더욱 힘 있게 추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분발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동부교회 강동구 장로

우 리의 꿈, 우리의 사명인 춘천성시화운동의 요람으로서 30만 시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축하! 거듭 축하합니다.
●동신교회 김영명 장로

독 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 새로운 곳에 터를 잡은 기독교 연합운동이 더욱 능력 있게 전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암교회 최상도 목사

기 독교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의 숙원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시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연합사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석사교회 김기기 장로

춘 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본부의 지경과 능력을 더 크게 하셔서 춘천시 복음화의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드비전 이명신 관장

합니다

봄내골(春川)이 빛납니다. '시'로 축하합니다.

축 축하합니다
사 사랑 가득 담아
무 무슨 일이던지
실 실체가 뚜렷하게 (實体)
이 이루어지기를
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춘천중앙감리교회 김기태 장로

하 나님의 은혜로 연합회와 성시본부의 새로운 사무실 확보 이전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장소를 준비해주신 와이신협과 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본부가 춘천을 성시화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영광된 기관으로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춘천제일장로교회 마철규 장로

춘 천기독교연합회, 성시운동본부 사무실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와이신협과 CBS춘천방송과 함께 춘천의 성시화와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제일장로교회 황병호 장로

사 무실 이전을 통해 연합회와 성시본부가 더욱 더 춘천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기독학생회(IVF) 박용한 대표간사

JESSI NEW YORK Lemonade 레모네이드
격서리한 아름다운 멋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제 · 선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 시 뉴 욕 콘 센 셉
대표 전 순 천
☎ 252-7262
위치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발 · 다리 ·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원적외선 콜크 웰빙구두 엘파로스가 문제를 개선합니다!!!

남성화 | BCK-451 여성화 | BCK-034
◆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엘파로스를 신으시면 발과 몸이 건강해지고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 엘파로스(E.PHAROS)는 족부반사구건강법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조된 기능성 수제화입니다.
◆ 국내 최고의 발건강관리전문가의 자문과 권위 있는 정형외과원장의 추천을 받은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
* 대리점 및 취급점, 판매하실 분을 모집하오며 그밖의 사항은 상담 바랍니다.
춘천시 소양로2가 서부시장 상가1층 [http://www.sukryu.com]
이 승 철 집사 (춘천성광교회) ☎241-5143, 011-9792-0591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있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주찬양교회(박흥식 목사)편입니다



주찬양교회는 지난 1999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동면 장학리에 설립된 젊은 교회이다. 박흥식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주찬양교회의 시작

박흥식 목사와 주찬양교회의 개척 이야기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신대에서 신학수업을 마치고 큰 꿈을 가지고 춘천으로 올라온 박 목사는 춘천성심병원 앞에서 임대 개척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나 교회 개척은 쓰라린 실패로 끝났다. 임대한 건물이 이미 부도난 건물이었던 탓에 임대보증금마저도 회수하지 못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 1년여의 인내의 기도 후에 주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곳 동면 장학리에 교회가 등지를 틀게 된 것은 1999년.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었다. 전혀 재정적 토대가 없었던 박 목사와 교회에게 예수님도 믿지 않던 한 유지가 나중에 갚으라는 조건 아닌 조건으로 교회부지 1,000여 평을 임대해 주고, 교회건축비용으로 1억 원까지 빌려주었던 것. 더 놀라운 것은 5, 6년이 지났을 무렵 이마저도 교회에 기증하게 되는데 이 또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박흥식 목사는 원래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의 고향은 등해시.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박 목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것은 지금의 정유희 사모와 만나 결혼하면서부터였다. 당시 평신도 집사였던 정유희 사모는 쉬울 줄 알았던 남편의 구원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박 목사를 향한 간절한 작정기도는 시작된다. 남편의 신발을 교회로 가져가 그 신발을 붙잡고 박 목사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지가 3년여.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1번만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정 사모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기는 척 따라나섰던 박 목사는 그날 예수님을 뜨겁게 조우하게 된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박 목사의 발길을 딩시로선 알 수 없었던 왠지 모를 강력한 힘이 붙잡아 박 목사를 쓰러뜨렸다. 그는 성전에서 3일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울며불며 회개를 하였고, 각종 성령체험을 하게 된다. 그 후에 박 목사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고, 그 열매 또한 커서 동해시 택시선교회가 조직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박 목사의 삶은 결국 주님께 삶 전체를 드리는 목회자의 길로 인도받게 된다. 돌이켜 보면 이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 아내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다고 박 목사는 굳게 믿고 있다.

시한부 인생의 기적

박흥식 목사는 지금부터 1년 7개월 전, 가벼운 소화불량증세 때문에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의사가 위암 소견을 낸 것이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춘천 성심병원을 찾았지만 그곳에서의 진단 결과 역시 동일하였다. 그것도 위암 4기말이라는 것이다. 불과 3개월의 시한부 인생 선고인 셈이었다. 병원 측의 조속한 위 절제수술 권유로 박 목사는 정유희 사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에 붙인 채 성심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수술 전 병상에서 1박을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천국이지만, 교회를 개척하여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어린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박 목사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박 목사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하나님은 이후 긴박하게 국립 암센터로 이끄셨고, '신약(新藥)임상실험' 대상자가 되게 하셔서 가장 좋은 여건에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박 목사의 현재 상태는 발병 이전보다도 건강한 상태. 간, 위, 폐, 임파선 등 온 몸에 퍼져 있었던 암세포는 거의 사라졌고, 몸의 일부에 조금 남아있는 변이세포를 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만 남아있다고 한다. 이러한 박 목사의 치유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박 목사의 투병생활은 교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목사의 치유를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고, 교우들은 하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박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살릴 약초를 캐기 위해 산에 올랐던 교우들이 산삼을 캐어 기쁨으로 사택을 달려왔을 때 박 목사는 자신의 치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 목사는 지난 1년 7개월간의 투병생활을 초기부터 기록에 남겨 오고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의 손길을 전하기 위함일 것이다. 지금도 박 목사의 목회이야기와 투병 이야기가 여러 곳에 조용하게 그러나 감동적으로 퍼져나가 말씀과 간증의 요청이 있지만 조금 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박 목사는 겸손히 말한다.

찬양과 실버타운의 꿈



주찬양교회는 찬양사역에 대한 깊한 열망이 있다. 이마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교회는 노인 복지에 대한 꿈이 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주님께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부담감을 주신다고 박 목사는 말한다.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있기 원하는 교회, 박흥식 목사와 정유희 사모, 사랑스런 교우들이 있는 주찬양교회는 이 시대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

[취재 최상도,사진 김미경]





| 역사자료

강원도 교회 창립 약사 (略史 1.)



강원기독문화연구소 대표
김 기 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우리는 부활절 이츠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복을 주십시오."
-1885. 4.5일 상륙 첫 기도-



이펜젤라 선교사 (감리교)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입국할 당시의 인천항구 모습(121년전)

교회 창립 약사를 쓰면서…

역사(歷史)는 인류사회에 있어서의 과거의 기록이므로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바르게, 사실대로 쓰는것이 원칙이며 기록자의 주관과 사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료가 잘못 되었거나 가설(假說)의 부족이나 혹은 의도적인(?) 오류도 있다.

강원도 기독교 전래 연대도 정확한 기록이 없는 가운데 1902년에 강릉중앙감리교회와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창립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춘천중앙감리교회가 교회창립 100년사 발간을 준비하는중, 새시대의 젊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살피면서 미국의 감리교단, 장로교단, 본부에 보고한 선교사들의 기록을 읽고, 이제까지의 잘못 알려진 선교 역사와 연대를 바로 찾게 되었으며, 특히 강원도에 기독교가 전래된 시기가 1898년인 기록을 찾게 되어 지금까지의 1902년을 4년 앞당겨 수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감리교회는 1901년으로 수정하는 등 교회창립연도의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다시 정리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집필하게 되었다.(집필자 연락처 254-7367)

1. 우리나라 기독교 전래와 강원도 선교의 세 갈래길

우리나라에는 천주교 (Catholic:구교)가 17세기 초에 전교(傳敎) 되었고,강원도에는 1801년 천주교인 학살로 유명한 신유교난(辛酉敎難)이 있을때 천주교인들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기독교(Protestant:신교)가 공식으로 들어온것은 1885년4월5일 부활절 아침, 감리교 아펜젤러 목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가 인천에 상륙하여, 고종황제의 허락 하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장,감 두 교단 협의로, 감리교는 서울 경기 황해 강원 충청도와 함경도 일부에서 의료, 교육을 통한 선교에 주력하기로 하였고, 장로교는 평안 함경 경상 전라도를 중심한 선교 전도를 하기로 구역을 나누어 감리교는 우리나라 중부권역의 선교를 하였다

강원도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중부권 산간오지와 해안에 접해 있어서 불편한 교통으로 육로를 통하여 복음이 다음 세 갈래 길로 전해졌다

서울로 부터 가평 춘천 홍천 등지의 육로 산간 도시 중심의 선교와, 철원을 경유 하여 함경도 원산에 자리 잡고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평해등 해안선을 따라 전도한 해안지역 전도, 또 한길은 원주 횡성 평창 제천 충주 등 강원도 내륙 남부 지방을 걸친 전도이다 (* 감리교 동부연회사 참조)

2. 최초로 강원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해는 1898년 (지금부터 108 년전)

강원도의 교회 창립사는 1898년 이후 1930년대까지는 감리교 선교구역이므로 교회창립이 감리교회가 주를 이루었으며 12년간의 강원도내 교회창립은 다음 도표와 같다.

강원도내 교회 창립년도 (1898년~1910년까지 12년간)

창립연도	교회명	소재지	창립연도	교회명	소재지
1898년4월첫주	춘천중앙감리교회	춘천시내	1906년3월10일	인제감리교회	현,인제군인제읍
1901년5월24일	강릉중앙감리교회	강릉시내	1906년12월1일	산두감리교회	현,고성군거진읍
1901년7월17일	간성감리교회	현,고성군간성읍	1909년4월13일	화천제일교회	현,화천군화천읍
1901년10월5일	양양감리교회	현,양양읍소재지	1910년12월5일	동창감리교회	현,홍천군내촌면
1905년3월19일	서광감리교회	현,홍천군서석면	1910년3월10일	현남중앙교회	현,양양군현남면
1905년4월15일	원주제일교회	현,원주시내	1910년3월30일	양구감리교회	현,양구군양구읍
1905년10월3일	신성감리교회	전,춘성군	1910년8월1일	문암감리교회	현,홍천군내면
1906년 4월6일	횡성감리교회	현,횡성읍	1910년10월10일	평창제일교회	현,평창시내
1906년 5월5일	홍천감리교회	현,홍천시내	1910년11월5일	주문진교회	전,명주군주문진
1907년 1월3일	연당감리교회	현,영월군남면			

다음호:춘천복음 전래와 춘천중앙교회 창립역사

| 영혼의 양식

– 창 45 : 1~8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최 형 수 목사
(꿈이있는교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위태롭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반면에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넓고 깊은 안목으로 전 삶을 통찰하며 살아가느냐, 당장 오늘 하루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안목은 아무리 깊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목을 가지고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노예가 되어서 너무나 쉽게 절망, 포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속박되지 않고 넉넉히 환경을 이겨 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45장에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요셉의 안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1. 고난과 역경의 원인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해석합니다.(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과거에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당했던 너무나 억울하고 처절한 고통의 사건들을 형제들이 행한 악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에 따른 사건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과거 그 힘들었던 시절에도 또, 지금도 역시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그마한 일에도 불평, 원망, 원한을 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평, 원한을 품는다고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자기가 당한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용서하고 넉넉히 품어주기를 소원합니다.

2. 형통과 성공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8절 下)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이제 초강대국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고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전 인생에 걸쳐서 아무리 큰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현실 삶속에서 철저한 인내와 겸손, 성실성으로 살아온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과 인내, 겸손, 성실성 등도 그가 치리자가 되는데 일면 작용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셉이 어느 정도 자신의 노력을 '공치사'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요셉은 자기의 형통과 성공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철저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속의 죄악된 속성을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도와 주셨지만 그래도 자기가 일면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형통과 성공을 생각할 때마다, 7,8절 요셉의 고백처럼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을 소유한 자가 되어 요셉과 같이 성공과 형통함을 생명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DTPi 디티피아

"주님만이 내의 길이고 진리고 빛이 십니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033.263.5152
Fax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기업선교를 꿈꾸며

강원기독경영인아카데미 박의범 원장(강원대학교 교수, 동부교회 장로)편

박의범 교수

황해도 황주가 고향인 박의범 교수. 그는 미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다. 박 교수의 할머님께서는 그를 절성님에게 팔았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6.25 전쟁 때문. 박 교수는 만일 한국동란이 없었다면 아직도 미신을 믿으며 살고 있었을 지 모를 것이라고 말한다. 주님은 민족적 비극인 6.25 전쟁을 통해서 박 교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전쟁으로 인해 박 교수의 가족들은 대구로 피난 내려오게 되었고, 힘든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다. 박 교수는 어머니를 따라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박 교수는 그 이후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깊이 감사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시절 그는 IVF(한국기독학생회) 성경공부를 통해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고, 1968년 서강대 IVF 모임을 만들었다. 박 교수는 서강대 재학 시절 춘천에 내려와서 강원IVF 창설예배를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드렸다. 그 후 강원 IVF를 모체로 하여 강릉 IVF와 원주 IVF가 잇달아 창설되었다. 강원지방 이사장을 두 차례 역임한 그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 IVF 중앙회 이사장을 맡아 섬기고 있다. 지난 1998년 서강대 IVF는 30주년을 맞아 '흠커밍 데이'를 열었는데 학부생 100여명과 졸업생 100여명이 모인 이 행사에서 그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그 언약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졸업한 서강대 IVF 후배들 가운데 수많은 신실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자비량 사역자들이 배출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계 각지에 이루어 나가고 있다.

박 교수는 1984년 10월 서울 원일장로교회에서 장로장립을 받았다. 부인 임창호 권사와 함께 현재 출석하고 있는 춘천등부장로교회에서는 10년째 장로로 섬기고 있다. 교회음악을 전공한 임 권사는 교회음악을 접하기 힘든 강원도내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서울신학교 춘천분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였고, 현재는 춘천등부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서 섬기면서 교회음악교육부를 통해 교회음악 전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

기독경영인아카데미

국제경영학 전공인 박 교수는 기독경영연구원 원장을 5년 전 역임하였으며,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은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독경영아카데미'이다. 서울 마포 신원그룹 본사내에 위치한 기독경영연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연구하며 교육, 봉사, 선교를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다.

기독경영연구원에서는 기독경영아카데미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기독경영아카데미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돕고 기업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며 기업이 선교적, 문화적 사명을 이루는 주요한 현장이 되도록 필요한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경영인상을 확립시켜 21세기에 경영분야의 전문인 선교사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경영분야의 형제자매들과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도록 도우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강원기독경영인아카데미

현재 박 교수가 주관하고 있는 '강원기독경영인아카데미'는 제2기 훈련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과 강원도 과정의 차이점은 서울과정이 차세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춘천과정은 크리스천 기업인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성경원리를 접목시키고 싶어도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강원기독경영인아카데미에서는 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경영인상(像)을 제시하고 비전, 전략, 인사전략, 창업, 기업선교 등을 가르치어 훈련시켜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한다.

박 교수 등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적인 예로 성경적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이랜드를 살펴보자. 박성수 회장이 일으킨 이랜드는 최근 유통업 3위로 뛰어올랐는데, 이 기업은 선교를 지상목표로 경영되고 있는 회사이다. 박 회장은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회사에 마련된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 회장님께 묻는단다(하 회장님이란 하나님을 지칭한다). 기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성경적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어 소비자, 종업원, 주주, 지역사회, 환경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이다. 물론 이랜드가 인수합병을 자주 하는 이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회장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덩치를 키워서 효율성과 제품을 좋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 더욱 강하게 기독교적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다. 박 교수는 강원기독경영인아카데미에서도 이런 기업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춘천과 강원도 기업계를 바르고 건전하게 주도하고, 주님의 영역으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업선교의 꿈



박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즉, 온 천하에 있는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세계선교에 온 마음을 쏟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기에 선교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방식의 선교가 아니라 기업선교가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나의 사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을 벌기위해서 구두를 만든다"고 주장한 현대 선교운동의 아버지 구두수선공 윌리엄 케리의 말을 독자 여러분 모두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강원기독경영인아카데미를 통해 기업선교에 주력하는 기독경영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춘천과 강원도 전역 기업계와 세계 미전도 지역에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무릎 꿇는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고귀하게…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건강하신가요? 영어성경으로 읽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Beloved,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thou mayest prosper and be in health, even as thy soul prospereth."(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함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무엇보다도"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이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통과 건강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그분들의 상황은 고난의 큰 싸움의 때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힘들고 지친, 건강을 잃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시나요?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2:43-47) 46절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KJV 성경으로 보면 "And they, continuing daily with one accord in the temple, and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did eat their meat with gladness and singleness of heart,"(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빵을 부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으며)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한결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즘 와서 많은 분들이 음식과 건강에 대해 관계가 깊다고 더욱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 좀 소홀한 듯합니다. 그리고 기독인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점점 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건강을 잃었습니까? 건강보다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건강에 대해 의사의 말보다 어느 과학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엡 6:2)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부모님을 찾아 부모님께 보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지키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며, 악을 피하여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 그것을 좇을지니라." (벧전 3:10-11)는 말씀입니다. 사실 건강은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찾아 뵙는 게 어떨까요?

끝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명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이니라." (딤전4:3-5) 조금 어렵지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빛과 인 쳐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기도도 진짜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 감사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식사기도가 너무 복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어느 때라도 과식과 술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겁게 되어 그 날이 뜻밖에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눅21:34)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 배만 섬기다가 혹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놓치고 살까 두렵습니다. 또 헙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도와줄 마음을 믹는 팁심꾸러기로 살까 두렵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편집부 이영규]

강원수해복구에 두 팔 걷은 부산과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사랑의 마음을 모으다

올해 강원지역 수해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강원도 도민들을 위해서 부산과 포항의 믿음의 형제들이 일어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모았다. 특히 부산 성시화운동의 정필도 본부장을 위시로 하여 부산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약 4400만여 원을 모금하고, 강원지역을 돕고자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를 통해 성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덕산리교회


사천교회

이 성금은 인제의 덕산리교회와 평창의 사천교회를 돌아보기로 했는데, 이번에 수해를 당한 이 두 교회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 교회로서 특히 교회가 수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 돌봄의 사각지대가 되어 구호의 손길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적 상황 속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수해에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던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용기와 기쁨을 주게 되었다.

예 항

구원 릴레이

옛 소련 스탈린 시대의 시베리아 한 수용소에 많은 빈제제 인사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사 '보리스 콘펠드'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의사였기에 다른 죄수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은 자유스러운 처지였습니다. 이 교도소에는 한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오히려 자기에게 인생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듣고는 콘펠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는 겁니다. 이 중환자는 콘펠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콘펠드는 어느 날 한 젊은이를 만나 진단하다가 암환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기 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환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날 밤 콘펠드는 의문의 저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암환자가 그 후 살아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렉산더 솔제니친 입니다. 소련이 붕괴되는데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받는 솔제니친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협 203-02-280238 조남진
조흥 716-01-00138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 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 교회	순복음하니 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 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 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주찬양 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친일현수막
베비타트(춘천지회)	엔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강원기독문화연구소	김 기 태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칩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협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한림미술치료센터 프로그램 안내

"마음의 치유와 성숙을 위한 상담자, 그리고 주님의 합작품입니다."

[아동 ·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미술치료 교육과정] ※ 주일학교, 학생회 지도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1. 기간 : 2006. 10. 10 ~ 2007. 3. 20(6개월) 매주 화요일 저녁6:50~9:30
2. 내용 : 기본적인 상담이론 및 발달심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 기법

[행복한 마음을 위한 미술대화 프로그램]

- 큰 나라 방과후 교실 :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거나 행동이 많거나 또래관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실 (월-금요일 3시-6시)
- Playful School : 쉬는 토요일! 건강한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신나는 미술 활동 (월 2회, 쉬는 토요일 오전)
- 좋은 엄마되기 : 엄마의 자아성장, 올바른 자녀교육과 튼튼한 가족을 위한 독서활동,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미술기법 (매주 1회)
- 부모-자녀 그림대화 : 미술작업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4주, 매주 1회)
- 난, 좋은 친구 : 건강한 자기표현과 또래관계 향상(4주, 매주 1회/유아 · 아동 · 청소년반)

센터 : 033) 263-7572 / 대표 : 017-373-9273 성 복 순
춘천시 퇴계동 959-4 평화성결교회 2층 한림미술치료센터

강원기독경영인아카데미
제2기생 모집

1. 대상 : 강원도 내 중소기업경영인, 직장인 및 경영에 관심이 있는 기독인
2. 기간 : 9월 7일~11월 30일 (매주 목 오후6:30-9:00)
3. 장소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1층 강당 (퇴계농공단지 옆)
4. 회비 : 20만원 (입금구좌 : 농협 253-12-046476 김현실)
5. 인원 : 40명 (선착순 선발)
6. 제출서류 : 신청서, 춘천시(춘천동부장로교회 사무실, 홈페이지 www.chdongbu.or.kr 입반자료실 신청양식)
7. 접수 : 사무실(tel.252-5959, fax.241-1999)
8. 문의 : 총무 김지현(엔투어 244-7404, 011-9057-3946) 간사 백종진(제이팸 016-779-1275)

※ 학생 50%, 한교회 3명이상 동록시 25% 할인, 분납가능

포·토·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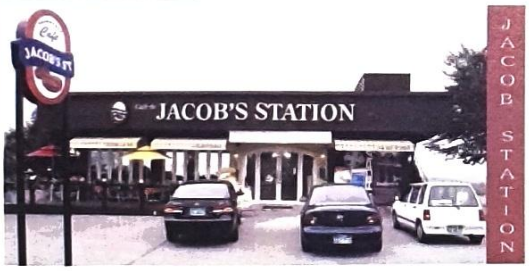
바람과 들풀



시. 이영춘 집사(중앙성결교회, 시인)

내가 가을 햇살 속에서도
흐느끼는 들풀이라면
그대 그 들풀 사이로 흐르는
바람이었네
그대가 아픔으로 흔들리는 파도라면
나 그 파도를 잠재우는
섬이고 싶었네
우리 서로 하늘에서 마주치는
불꽃으로 만나
가을 햇살 속에서도 가슴 적시는
초록 물방울이었네
눈 감으면 눈 속으로 쏟아지는 별들
그건 그대의 이슬 방울 같은 영혼이었네
꿈 속에서도 내 우주를 싸고도는 꽃잎
그건 내 푸른 영혼 속으로
소리없이 다가오는
그대의 발자욱이었네

소개합니다



「이디오피아 커피의 세계로 가는 '커피정거장'」

'야곱의 쉼터(Jacob's Station)'

'야곱의 쉼터(Jacob's Station)'는 춘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봉산 만천리 외곽순환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름 그대로 아무 부담 없이 들러 비를 피하거나 숨을 고를 수 있는 '정거장'이다.

커피테마파크를 홍보하는 공간이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쉼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야곱의 쉼터는 맛과 향이 뛰어난 최고 품질의 이디오피아산 커피를 '춘천 이디오피아 커피테마파크'를 통해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제대로 된 커피, 특히 이디오피아 커피의 진수를 보여주고 알려나가기 위해 주변의 대형 카페들에 비해 훨씬 싸게 제공하고 있으며, 술이나 음식은 팔지 않는다.

야곱의 쉼터가 가지는 가치는 판매수익금을 아프리카 어린이 ADIS환자의 치료기금 마련과 이들을 돕는 봉사현장에서 한국인의 정성을 전달하며 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데 있다. 그 뒤에는 이디오피아후원회라는 NGO가 있고, 춘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커피테마파크라는 증장기 프로젝트가 있다.

야곱의 쉼터 운영 책임자이며 춘천커피테마파크 프로젝트 실무책임자인 신광철 국장은 "커피는 단순한 농산물 가공산업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이며, 6.25전쟁을 통해 이디오피아와 인연을 맺은 춘천시를 커피향이 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커피테마파크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또 "야곱의 쉼터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고 말한다.

결국 야곱의 쉼터는 커피테마파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길목에 연결고리이자 현실적인 실험무대로 존재한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서로 만나 휴식을 취하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에 대해 토론할 것이며, 나눔의 미덕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게 될 것이다.

[취재 편집부/ 야곱의 쉼터 ☎257-5625]

행사안내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 「아이사랑지킴이단」 모집
1. 기간: 8월 21일~9월 8일
2. 오리엔테이션: 9월 12일 오후 6시
3. 장소: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강당
4. 대상: 아동과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5. 문의: 국번없이 1391, 244-1391~2

▣ 월드비전 ▣

♣ 부모교육
1. 일시: 2006년 9월 7일, 21일, 28일 (목)
2. 장소: 복지관
3. 내용: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태도, 언어, 행동 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 제20회 춘천연합찬양축제 지휘자 모임
1. 일시: 2006년 9월 21일(목) 오후 7시
2. 장소: 복지관 회의실
3. 대상: 제20회 춘천연합찬양축제에 참가하는 12교회 지휘자

♣ 집수리 실시
1. 일시: 2006년 9월 22일(금)
2. 대상: 제가어르신 1~2 세대

♣ 자원봉사자 나들이
1. 일시: 2006년 9월 26(화)
2. 장소: 미정

※ 제20회 춘천연합찬양축제
1. 일시: 2006년 10월 21일(토) 오후 6:00~9:00
2.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3.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4. 주관: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5. 후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BS춘천방송, 강원도민일보사
6. 문의: (033)254-7244

건강상식

▣ 족부반사구 건강법 ▣

인체의 모든 기관은 발바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잘못된 보행습관과 불편한 신발이 몸의 균형을 깨뜨린다. 발을 알면 모든병을 자가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 발바닥에 분포된 용천혈 등 지압점을 자극하여 제2의 심장인 발의 혈액순환 촉진 및 신체장기 기능이 청상에 이르는데 도움을 준다.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1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 하나님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 !!! 아가피아 독서교사과정(자기개발과정-초급) 개강(첫날은 공개강좌로 진행합니다)

일시 · 장소 : 1차) 2006년 9월 5일(화) 오후 7시
우두감리교회 교육관(241-1922)
2차) 2006년 9월 6일(수) 오전 9시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241-9939)

인간변화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기회!
<꿈의 학교> 실립으로 인정받은 아가피아 학습이 있습니다.

★ 이 과정에 참여할 대상
1) 자기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2) 아가피아를 통해 홈스쿨 교사를 하고 싶은 분
3) 가정에서 자녀를 영재와 인재로 양육하고 싶은 분
4) 자신의 기관(교회 및 학원)을 학습 공동체로 운영하고 싶은 분

★ 이 과정에 참여하신 후 기대효과 및 특전
1) 삶의 질 향상 : 자기 변화의 경험과 개발 과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기대
2) 능력의 향상 : 인간의 잠재 능력 개발 방법과 자녀들을 인재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성과 능력을 기대
3) 수료증 및 자격증 취득 : 본 과정 이수자는 본 원에서 홈 스쿨 자격증을 수여
4) 독서교사과정(2급 과정 - 독서스쿨 / 독서당 교사자격증 취득) 입학 자격 부여

★ 수강등록 안내
> 등록방법 : 우리은행 557-011649-13-101 (주) 드림교육으로 온라인 입금 후 전화로 등록 확인
인터넷으로 원서 제출 (http://www.agapia.or.kr 아가피아 인재개발원)
> 교육비용 : 20만원
> 교육기간 : 9월 7일(목) ~ 10월 26일(목) (8주간) 오후 7시부터 2시간 40분간
> 문 의 : 062-971-3952 (본부 사무실) 011-372-9100 (김성호 목사)

아가피아인재개발원 강원지부 (지부장 : 김성호 목사)

강원총기독교연합회 방문



강원기독교연합회(회장:김용상목사)는 8월 4일 금 오전7시30분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날 강원기독교연합회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에 대한 협조와 홍보를 부탁하였고,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심리치료 사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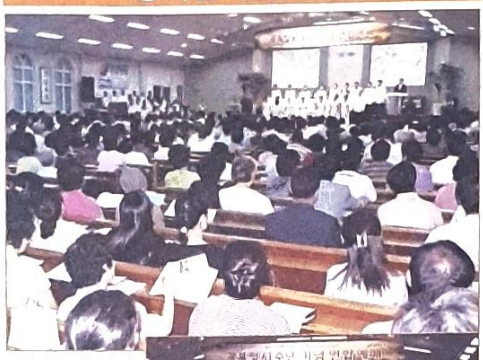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홍창표)은 8월 23일(수) 본 기관 회의실에서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해 심리치료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다. 사례회의에는 미술치료사,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생활교사 및 담당 상담원 등 6명이 참가하여 아동뿐 아니라 아동 가정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개입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전 감사예배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상호)와 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 조영춘)는 온교동 춘천와이신협협동조합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8월 25일(금) 오전10시30분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원들과 기관대표들, 성시실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린 후, 연합회 정관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개정안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다.

광복절 연합예배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최현묵목사)는 광복 61주년을 맞아 8월 13일(주일) 오후7시30분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광복절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강사 임택권목사(전 아세아연합신학대총장)는「자유」라는 주제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으며, 나라와 민족, 춘천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비타트 번개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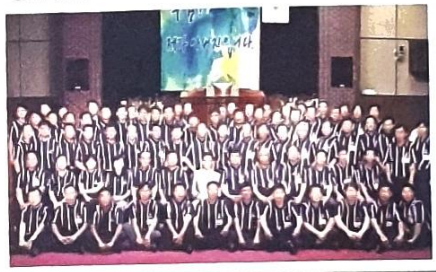


한국사랑의집 짓기 운동 춘천지회에서는 7월 31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소망의 마을에서 '2006 한국번개건축촉제'가 진행되어 약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휴가와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을 위해 8월 3일(목) 오후7시30분 공무원연수원 강당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밤'이 마련되었다. 춘천지회는 올해 1동 4세대를 건축,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석연휴에 입주할 계획이다.

춘천 7기 아버지학교



춘천 7기 아버지학교가 8월 26일(토) 오후 5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를 외친 약 120여명의 아버지들은 제1주차를 시작으로 9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을 받게 된다.



춘천 어머니학교



춘천3기 어머니학교가 8월 30일(수) 오전10시 석사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약100여명의 어머니들은 성경적 여성상과 아내의 사명, 어머니의 영향력, 기도하는 어머니 등을 주제로 9월 27일까지 5주간 교육을 받게 된다.



아가피아 agapia 강원지부

하나님의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자녀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학교 **아가피아 스쿨**

신앙과 교육의 통합 AGAPIA스쿨 우등생을 뛰어넘어 인재로 아가피아 스쿨

- ▶ 매일하는 학습 구성으로 독서학습능력을 기릅니다.
- ▶ 유용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국내 최초 e-런닝 독서학습, 듣기학습 등)
- ▶ 인격과 비전을 기르는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매일 학습	주간 학습	월간 학습
아가피아 교과	기상학습 영성학습 성찰학습	독서/독해학습 토론/논술학습 듣기학습 강의학습	리더십학습 멘토학습 신앙학습 프로젝트학습
학교 교과	초등 / 중등 / 고등과정 온라인 스쿨		
영어 교과	1. 유치원과정(7-8세) : EF교과/미국교과 2. 초1-2(미국국정교과) : 영어 수학 과학 사회 3. 초3-중3(미국국정교과) : 영어 수학 과학 사회테마 프로젝트		

흔히 인격을 갖춘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격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실력이 출중하지만 비전이 올바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큰 비전을 품고 있으나 인격과 실력이 미천하면 그의 비전은 말로만 그치는 꿈이 되어버리고 말것입니다.
훌륭한 리더, 탁월한 인재는 인격과 비전과 실력이 고루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바른 꿈을 품고 인격을 함양하며 실력을 키워나가는 사람.

아가피아 스쿨은 영성을 갖춘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리더로 키우는 방과 후 대안학교입니다.

춘천에는 다섯 곳에 아가피아스쿨이 문을 열어 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033-241-9939 (사무실-춘천 베드로선교센터 5층)
011-372-9100 (김성호 목사-아가피아 강원 지부장)
011-9797-4217 (최승만 목사-강원 아가피아 스쿨)

광 고

사 설



가족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지방정보교회 담임

나 춘천 아버지학교 7기생으로 참가 훈련 중이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마음이 찡하며 부담을 안겨주는 표어이다. 아버지는 부부에서 시작된다. 아내를 어떻게 섬겨 사랑하고 있는가? 자문해본다. 나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옆 차가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내 차 문짝을 '찍익' 긁어 놓고 달았다. 나는 즉시 차를 멈추었다. 상대편의 차를 운전하던 부인이 허겁지겁 내리더니 내게 다가왔다. 많이 놀랐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미안합니다. 아직 운전에 서툴러서요. 변상해 드릴게요.' 그 부인은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기 차 앞 범퍼가 찌그러진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를 전에 산 새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았으니 남편 볼 면목이 없다며 계속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녀는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서류를 꺼내기 위해 운전석 옆의 서류함을 열었다. 그리고는 봉투 속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그 부인이 말했다. '이건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담아 둔 봉투에요.' 그 부인은 또 한 번 울먹였다. 그런데 그 서류를 꺼냈을 때 제일 앞장에 굵은 펜으로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아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그 부인의 남편이 쓴 글이었다. 내가 그 부인을 다시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두 줄기로 흘러 내렸다. 우리 주위에는 조그마한 노력으로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따뜻한 말 한 마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관심이 모두가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다. 사랑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해 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푼다면 세상은 정말 따뜻해지지 않을까?"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벌써 9월이다.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키워진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 알려드려요

◆ 에스림(구 예수사람운동)
1) '목동모임'
일시: 9월 2일(토)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2) '기독동아리 연합체육대회'
일시: 9월 9일(토) 장소: 강원대학교 운동장
3) '예스컵 프레이즈'
일시: 9월 16일(토) 오후 6시30분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문의: 244-5400/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캠퍼스 개강 채플 및 학생대표단 교체식'
일시: 9월 1일(금) 오후7시 장소: CCC 아카데미하우스
2) '전국 학생 대표단 임명식'
일시: 9월 2일(토) 오후5시 장소: 한국 CCC본부
3) '친구 초청 전도 채플'
일시: 9월 15일(금) 오후7시 장소: CCC 아카데미하우스
4) '중급 LTC(전도 및 제자화훈련)'
일시: 9월 18일(월) ~ 21일(목) 오후7시
장소: CCC 아카데미하우스 문의: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 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대상: 가정주부 관심있는 자매님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파트 맞은편)
3)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일시: 9월 24일(주일) ~ 10월 23일(월)
기도모임문의 : 이선희 간사 010-7152-0135
4) 기도전략세미나
일시: 10월 16일(월) ~ 19일(목) 장소: 나눔교회
강사: 이광임 시조, 정형섭 목사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제자학교 개강'
일시: 9월 11일(월) 오후7시 장소: 춘천 IVF 회관
2) '대표간사 협의회'
일시: 9월 20일(수) ~ 23일(토) 장소: 미정
3) 'IVF 50주년 전국간사모임'
일시: 9월 25일(월) 장소: 옥천 좋은동산
4) '강원지역 IVF 간사연합'
일시: 9월 27일(수) 오전10시 장소: 춘천 IVF 회관
문의: 252-5200

◆ JDM
1) '개강 집회'
일시: 8월 31일(목)~9월 1일(금) 오후7시 장소: 미정
2) 'TTS 개강'
일시: 9월 8일(금) 오후7시 장소: 춘천지구회관
3) 'PRETTS 개강'
일시: 9월 15일(금) 오후7시 장소: 춘천지구회관
문의: 252-3192 / 011-9068-3192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교사강습회'
일시: 9월 11일~12월 9일(매주 월 12주간)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등록비: 3만원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ely]

◆ GBT
1) 비전기도회
일시: 9월 18일(월) 오후7시 장소: 에덴교회
2) 가을학기 워크리프스쿨 개강
① God's Perspectives 과정
일시: 9월 22일(금) 오후3시, 7시 장소: 에덴교회
교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선교이야기(권성찬 지)
② Bible Translation 과정
일시: 9월 25일(월) 오후7시 장소: 에덴교회
교재: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언어로(조지 코완 지)
문의: 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033@gbt.or.kr]

◆ 성서유니온 강원지부
1) '매일성경 독자세미나'
주제: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강사: 장희경 교수(이세아연합신학대학 신약학 교수)
일시: 9월 7일(목) 오후7시 30분~10시 문의: 256-8786
장소: 에덴교회 (팔호광장에서 후평동 방향 우측 100m지점)

◆ 성시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6시30분 문의: 256-1260
장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와이신협3층)

◆ 세계태권도선교회 '알렐루야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1-9791-6055

◆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방이선교회신광교회 유근열 목사

◆ 여호수아워십댄싱선교회 '워십선교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7-374-2440

◆ 춘천 3기 어머니학교
일시: 8월 30일~9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전10~오후3시
장소: 석사감리교회
문의: 민병임 018-325-1968, 정태순 011-362-1338

◆ 춘천MPS 11기 개강
일시: 9월 2일(토) 오후3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253-3399, 019-9903-1148

◆ 춘천청년포럼 '영성집회'
일시: 9월 9일(토) 강사: 송제근 교수(도라사관학교)
장소: 미정 문의: 이병철 017-254-3162

◆ 춘천홀리클럽
1) '월례기도회'
일시: 9월 18일(월) 오전6시 장소: 춘천명성감리교회
2) '성시합창단 단원모집'
문의: 이학규 017-370-4831, 김연병 011-9792-5775



"손잡고 함께 가는
여러분의 Y신협이 되겠습니다"

- 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입니다.
- 적금 신용대출을 받을때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담보1억, 신용 5천만원이며, 교회일반회계 입출금 거래시 평잔의 2배 범위내 무보증 무담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최고 2천만원입니다.
- 교회담보 대출의 최저금리는 5.9%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기간은 기본3년에 필요한 경우 5%이상 원금상환시 계속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류가 간단하며, 교회앞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 성도님들의 대출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명의 송금수수료 면제 또는 기본수수료 5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본 소 : 033-255-1007 (1층 Y신협, 2층 기독교연합회, 3층 CBS)
강남지소 : 033-261-1002 (퇴계현진에버빌 2차 옆)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김춘배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춘천성시신문사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